

의미의 구체시*

— 고원의 시집 『나는 디어 이다』에 대한 하나의 독법

김 임 구 (서울대)

"die frage nach dem
sinn
ist sinn
der frage

의미에 대한 질문이 질문의 의미이다"¹⁾

1. 구체시와 의미와의 상호관계

구체시는 문자의 음성, 영상 및 음향적 측면을 사용하여 전통적 "기표·기의"의 관계를 깨뜨리며 초월하고자 하는 의도를 쫓는다.²⁾ 표현매체는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구체시는 다의성 (Polysemie)의 추구를 그 본령으로 삼는다. 다의성은 종종 모호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자신의 해석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예컨대 자유연상(freie Assoziation)은 매우 바람직한 독법으로 추천된다. 강한 유희적 성격을 띤 구체시에서 독자는 자신만의 독법을 (재)창조해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체시의 독자가 그 곳에서 고정된 한 가지 의미만을 읽어

* 본고는 2004년 12월 9일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주최한 집담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1) 고원, 『나는 디어 이다』, 서울: 이영과리울, 2004, 158쪽. 이후 본문 인용은 "고원, 쪽수"로 표기한다.

2) 구체시에 대한 입문서로는 다음의 책 두 권을 추천할 수 있다. Ulrich Ernst, *Konkrete Poesie. Innovation und Tradition*, Wuppertal 1991; B. Garbe (Hg.), *Konkrete Poesie, Linguistik und Sprachunterricht*, Hildesheim 1987.

내려 할 때 그는 이미 구체시의 본질과 의도를 놓친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시가 독자에게 다양한 의미 유희를 가능하게 한다 해도 해당 구체시의 유희공간의 성격이 그 안에서 가능한 유희의 양태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구체시의 다의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규정된 의미의 영역을 그려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체시의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최근 출간된 시인 고원의 시집 『나는 나그네 이다』에 대한 하나의 독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인할 과제는, 과연 구체시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수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의 두 예는³⁾ 이런 질문을 긍정할 수 있게 해준다.

sau	돼지
aus	나가
usa	미국

위의 구체시는 독일 시인 마이어스(Hansjörg Mayers)가 1965에 발표한 시이다. s, a, u의 세가지 알파벳의 위치만을 다르게 배치한 듯한 위의 시는 60년대 독일의 반미감정을 짚고 간결하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명사를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문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필자가 번역한 것처럼, 반드시 "돼지, 나가, 미국"이라고 번역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그냥 독일 알파벳 "에스 s", "아 a", "우 u"로 읽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런 비당위성은 동시에 반미감정의 표출을 더 용이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위의 구체시가 갖는 정치적 의도는 더욱 명료해진다.

3) 아래에 열거된 두 예문은 Reinhard Döhl, *Konkrete Literatur*, in: <http://www.stuttgarter-schule.de/konkret1.htm> 에서 인용하였다.

실제로 독일의 68세대는 그들의 구체시에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담고 있었다. 다음 고펜링어(Gomringer)가 1968년에 발표한 시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강조한다.

je participe	나는 참여한다
tu participes	너는 참여한다
il participe	그는 참여한다
nous participons	우리는 참여한다
vous participez	당신들은 참여한다
ils profitent.	그들은 이익을 낸다.

첫 눈에 프랑스어 동사표처럼 보이는 위의 구체시는 그 당시 노동력을 착취하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자본의 속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예로써 구체시에도 의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구체시도 문학의 보편적 정의에 담아낼 수 있다. 프로이트는 문학적 상상력이란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교정 **Korrektur einer unbefriedigenden Wirklichkeit**"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일어난 역사보다는 가능한 잠재성을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문학이란 의미 있는 존재의 가능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가 실존재분석에서 존재의 구조로 확정한 근심의 공식인 "세상에 이미 있으면서도 자기를 선취하는 것 **Sich-vorweg-im-schon-sein-in-der-Welt-sein**"⁵⁾은 문학의 기본적 내적 운동과도 일치한다. 필자는 구체시 역시 시인의 존재론적 운동이 표출된 수단이며 장소라고 상정한다.

4) Sigmund Freud, *Der Dichter und das Phantasieren* (1908), in: ders., *Studienausgabe*, Bd. X, Ffm 1969, S. 174.

5) Martin Heidegger, *Gesamtausgabe*, Bd. 2: *Sein und Zeit*, Ffm 1977, S. 255.

2. 고원의 시집『나는 ㄷㅌㄹ 이다』

본고의 주제가 되는 시인 고원은 90년 대 이후 끊임없이 한글을 이용한 구체시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간된 시집 『나는 ㄷㅌㄹ 이다』은 그의 노력의 중간 결실로 한국시의 중요한 작업으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이론적 배경 하에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고원의 시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에 고원의 구체시는 소통에 대한 소원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구체시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상응하여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삶의 어떤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 너 그리고 삶 그 자체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런 구체시에서 말하자면 "구체적 자아 konkretes Ich"⁶⁾의 어떤 독특한 태도가 표출되는가 하는 것이다.

조각가 이기철도 고원의 구체시와 관련하여 문맥과 의미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한편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냈고 문자는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 안에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이 되고 난 뒤의 투명하지만 답답한 문맥 안의 세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지 못한 그는 이 모든 것로부터 떠나 순수하게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여행하려는 문맥 밖의 세계 또한 다시 문자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6) 이 표현은 “서정적 자아 lyrisches Ich”에 상응하는 필자의 실험적 용어로서, 작가와 서정적 자아와 역할면에서 일치하지 않듯이, “구체적 자아”는 인간 고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산문에서 일인칭 설화자를 작가 자신과 구분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듯이 — 예컨대 『젊은 베르터의 고뇌』에서 베르터를 청년 괴테와 일치시키는 것은 문예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구체적 자아와 그 작가를 구별하는 것이 독자의 미학적 유희와 상상력의 즐거움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익하다.

에 그는 어쩔 수 없는 시인이다 (.....)"⁷⁾

2.1 고원 구체시의 형상원칙 (Gestaltungsprinzip)

고원에게 있어 구체시는 텍스트가 동시에 그림이며 효과를 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그의 텍스트는 스스로 자기연출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원은 자유연상을 주요한 형상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자유연상의 특징은 항상 동음이의(同音異/二義)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별명/이름이 개마/고원이다.⁸⁾

아내는 없고 딸이 하나있다.

우리의 나이는 늘 ‘네/내 살’이다.⁹⁾

고원의 동음이의는 위의 ‘네/내 살’에서 보여지듯이 나이를 감정 없이 숫자만으로 지칭하는 것 같으나 동시에 딸에 대한 부성이 진하게 느껴지도록 장치되어 있다. 또한 고원 구체시의 특징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유기적으로 합체하여, 시를 보면 발음을 하도록 유도되고 그것은 곧 바로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을 자아낸다. 즉 그의 구체시는 “보면 발성(發聲)하도록 유도/유희된다”라고 공식 지을 수 있다.

그가 쓰는 발성들은 예컨대 끼끼끼, 응응응, 쿵쿵쿵, 팔팔팔, 방방방, ㅎㅎㅎ 등 유아적, 억압 받지 않은 원초적 발성이다. 이런 원초성의 반복은 인간의 원천에서 느끼던 그 기쁨을 재현한다. 이런 유아적 기쁨의 충족은 심리분석학에서 자기 속에 있는 아이를 억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요청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작가에게나 독자에게 자가 치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7) 고원, 156 쪽.

8) 고원, 12 쪽.

9) 고원, 12 쪽.

고원의 한글 구체시는 여러 종류의 내적 운동이 넘친다. 결코 정지된 그림으로 서 있지 않고 항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론적 운동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시공의 운동은 발성을 요청하는 식으로 일어난다.

3. 하나의 독법

필자는 위에 언급한 시각을 기초로 하여 고원 구체시에 대한 독법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3.1 웃음을 통한 자기정초(Selbstbegründung durch Lachen) (고원, 15쪽)

왼쪽에 인용된 시는 이미 지적한 바 대로 발화(Artikulation)를 유도한다. 원래는 "하나"의 변형과 자기복제로 읽히기도 하나 동시에 자기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제된 자아는 자기강화이면서, 동시에 중간의 여백은 자기강화가 타인을 배제하는 권력에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암시를 한다.

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

나는 물이다
'천일야화'의 사허리자드와
왕 사흐리야르

이런 측면은 다음 시에서 더 확실히 드러난다.

3.2 너와 나의 변증법 (고원, 19쪽)

“ㄴ”, “ㅏ”, “ㄴ”으로 구성된 원편의 시는 독자에게 “안”을 발음하도록 유도한다. “안”은 “아니다”의 의미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동시에 “안[內]”을 발생시킨다. 이때의 내부로서의 안은 바로 타자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한다. 내가 부정된 바로 그 곳에 네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너와 내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된다.

ㄴ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나는 물이다 또는 아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이다

3.3 생산적 자궁으로서의 꿈 (고원, 83쪽)

왼쪽에 인용된 “꿈틀”의 시는 우선 리드미컬한 운동을 연상시킨다. 마치 탈춤의 춤사위를 보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킨다. 동시에 탄생을 앞둔 태아의 운동과도 같이 생명을 연습하고 있다. 고원에게 있어 꿈은 탄생 위한 연동운동이며 시에 기존의 고정된 체계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다.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틀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속의 꿈이 나의 틀이다

3.4 탄생의 희극성 (고원, 142쪽)

고원에게 있어 탄생은 위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희극성으로 점철된 사건으로 나타난다. 탄생의 신비한 과정이 하나의 생리작용과 연상 지어짐으로써 탄생의 고통은 잊혀지며 수선스러움으로 대체된다. 이런 위트의 극대화는 태어난 자신에 대해 지나친 과대평가를 하지 말 것을 암묵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에 대해 아이러니적 간극을 갖고 대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방 귀

24개의 방과 하나의 귀
또는 귀빠진 날

3.5 나의 심미안 (고원, 16쪽)

위와 같은 탄생과정을 거쳐 성장한 구체적 자아는 예술가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요청의 자아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변명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요청과 심미적 놀이 사이에서 느끼는 구체시적 자아의 갈등이 “미안”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유희적 자기변명을 통해 심미적 놀이에 빠질 수 있는 명분, 정당성을 획득한다. 동시에 “미안”의 표출은 그의 유희적 놀이가 단지 개인적이며 임의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독자에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요청을 무장해제 시키고 어떤 죄의식도 없이 구체시적 자아의 놀이에 동참하라는 초청으로 읽힌다.

안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안

나의 심미안

3.6 자아에 비판적 거리두기 (고원, 127쪽)

낮과 밤의 음소를 이용한 왼쪽의 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바"의 음이 연상시켜주는 바보를 발설하고 결국 "나는 바보다"라고 진술한다.

위의 "심미안"에 빠져서 "미안"하다는 발설을 하는 자아는 개인적 미적 심취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동시에 그는 사회적 자기 정당화의 요구를 의식하고 있으며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바보"라고 정의한다. 이런 자기 상대화의 위치는 그가 역으로 사회비판을 행할 정당성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의 다른 시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잘 보여줄 것이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낮과 밤
또는 나는 바보다

3.7 사회비판 (1) (고원, 122쪽)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리아나의 환각에 빠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서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제사장은 하느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 사랑의 표본으로 칭찬을 받는다.

고원의 구체시는 이렇듯 짧음, 그리고 간단한 음소로 매우 예리하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시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각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착한 사람들을 위한 시
없는 마리아나의 환각

3.8 사회비판 (2) (고원, 67쪽)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는 결코 지탄 받을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의 개인화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의 기능화의 폐해에 대해 인간적 유대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매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

끼리끼리가 아니다.
문제는 끼다

어진 "끼리끼리의 문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누구나 알고 있고 동감하고 있다. 이에 고원의 지적은 단지 비판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한다. 진정한 개인의 개성, 즉 "끼"가 발휘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정말 웃음 "끼끼끼..."이 넘치는 집단,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3.9 타인의 초청 (고원, 29쪽)

이런 새로운 웃음과 자아 실현이 가능한 집단을 구성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다. 아무나 오면 된다.
그런 자는 나무와 같고 숲은 빈자리를 채워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독자이다.

나 무 아 무 나
무 아 무 나 무
아 무 무 아
무 나 무 아 무
나 무 아 무 나

숲의 빈자리
또는 독자와 작가

3.10 실천에의 의지와 희망 (고원, 84쪽)

속꿈과 밖꿈은 실천에서 일치된다. 고원의 꿈은 실천에 대한 강력한 희망에 기초하고 있다.
“밖꿈”은 “대박의 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 리 의 꿈 은 꼭 꾸 밉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꿈 입 니 다
우 리 의 꿈 은 꼭 꾸 밉 니 다

속꿈과 밖꿈

3.11 에로스 (1) (고원, 88쪽)

고원의 구체시는 건조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가 전래로 사랑을 노래하는 장르라면 고원은 구체시에서도 사랑의 소재를 성공리에 끌어들이고 있다.
첫눈이 내린 날 사랑을 한 연인의 모습은 마치 첫사랑에 눈뜬 청순한 남녀를 연상시켜준다.

첫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첫눈의 사랑

3.12 에로스 (2) (고원, 32쪽)

서정시에 등장하는 에로스와 술의 모티브를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재치있게 구체시에 담았다는 것은 구체시의 가능성을 실현한 놀라운 예라고 말할 수 있다.

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는 행위와 두 입술이 마주 닿는 키스의 연상이 서로 오버랩핑되면서 에로스와 바카스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놀랍게 표현하였다.

동시에 첫 키스의 분위기를 매우 감칠 맛나게 표현하였다.

입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입

빨강 포도주
또는 두 입술

3.13 에로스 (3) (고원, 144쪽)

고원의 에로스는 낭만적 성격에서 사실적 성격으로 옮겨간다.

불 꺼진 그녀의 창문 앞에 선 구체적 자아는 여러 연상의 작용 과정에서 육체의 변화를 느낀다.

다시금 구체시를 통해 이런 감정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음이 놀랍게 느껴진다.

이런 남자의 상상을 이렇게 짧은 구체시에 표현한다는 것은 한국시의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업적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끈

불꺼진 그녀의 창문

3.14 고. 카프카 (K. Kafka) (고원, 123쪽)

에로스의 동경은 그 성취를 요구한다. 평생 독신으로 보냈으면서도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믿었던 카프카를 좋아하는 구체적 자아는 그의 정신적 발자취를 좇고 있다.

자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혼

나의 몸과 영혼

3.15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고원, 106쪽)

인생의 욕망과 그 좌절을 이해하는 구체적 자아는 “사라진 한 마리의 기러기”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펼칠 수 있다.

무리의 편대에서 빈 곳은 한 눈에 보인다. 마치 잃은 양 한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구체적 자아는 표현하고 있다.

그 동정심은 자기 착각을 하지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든지 해당될 것이다.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러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사라진 한 마리의
기러기

3.17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고원, 137쪽)

이런 익살스러운 구체시에도 엄숙한 존재의 법칙, 즉 죽음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숙고하고 있다.

“덤”은 독자에게 죽음의 정언적 명령을 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덤덤”하게 받아야할 사실이다. 덤은 그 다음 따라올 어떤 언술도 불가함을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변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운명의 차가움은 필연성으로 둘러싸인 네모 “미움”에 의해 영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차가움에 접하여 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말, 즉 변명이며, 잡담(Gerede, Geschwätz)에 불과할 것이다. “덤”은 영상적 피어리드며 동시에 음성적 마침표이다. 한글 구체시로 표현된 메멘토 모리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 □ □ □ □
□ □ □ □ □
□ □ **덤** □ □
□ □ □ □ □
□ □ □ □ □

부덤 속의 '더 없음'

4. 고원의 구체시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는 고원의 구체시가 자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주장 (Selbstbehauptung)을 거쳐 사회의 마모되어버린 규범에 대한 거절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원의 시에는 항상 자기와 동시에 타자가 동등한 권리와 신분으로 등장한다. 그는 자기는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서양적 자아의 상승과 고독을 절대화하지 않으며, 항상 타인에 대한 동경과 존경, 그리고 타인과 누릴 즐거움을 상상하며 선취하고 있다. 따라서 혼자 있는 구체시적 자아는 혼인을 상상하고 있으며 성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전혀 숨기지 않고 표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은 인간적 즐거운 삶의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즐거운 삶은 건강한 에로스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필자는 고원 구체시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 개인 주관성의 발생사
- 타인을 위한 내적 공간 창조
- 때거리적 연대에 대한 거부, 비판
- 타자 (Du)에 대한 긍정
-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에로스
- 죽음에 대한 숙고, 타나토스

구체시에 나타난 이런 모든 동기들은 단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다름아닌 따뜻한 휴머니즘이다.

■ 참고문헌

고원: 나는 디디리 이다, 서울: 이응과리올 2004.

Döhl, Reinhard: Konkrete Literatur. In: <http://www.stuttgarter-schule.de/konkret1.htm>

Ernst, Ulrich: Konkrete Poesie. Innovation und Tradition. Wuppertal 1991.

Freud, Sigmund: Der Dichter und das Phantasieren (1908). In: ders., Studienausgabe. Bd. X. Ffm 1969.

Garbe, Burckhard (Hg.): Konkrete Poesie, Linguistik und Sprachunterricht. Hildesheim 1987.

Heidegger, Martin: Gesamtausgabe, Bd. 2: Sein und Zeit. Ffm 1977.

<Zusammenfassung>

Konkrete Poesie als Erzählung.

Über den Gedichtband "Ich bin zwei. Ein siamesischer Zwilling"

von Koh Won

Ihmku Kim (Seoul National Uni)

Beim genannten Gedichtband (2004) handelt es sich um eine Sammlung von konkreter Poesie, die der Dichter Koh Won mithilfe des koreanischen Alphabets experimentell hergestellt hat. Gemäß der Stoßrichtung der konkreten Poesie, die die phonetische, visuelle und akustische Dimension der Sprache als literarisches Mittel ausbeutet, weiß auch Koh die Eigenart der 24 Buchstaben des koreanischen Alphabets wirkungsvoll und variationsreich einzusetzen. Da dabei oft die konventionell festgelegte Beziehung zwischen Signikant und Signifikat durchbrochen wird, entstehen neue, manchmal bizarre Bedeutungen, die sich einer eindeutigen Sinnzuweisung entziehen und so dem Leser ein polysemes Deutungsspiel erlauben. Dieses Spiel wird technisch vor allem durch eine geschickte Auffindung einer Reihe von Homonymen ermöglicht.

Ausgehend von der These Freuds, nach welcher die literarische Phantasie sowohl eine Wunscherfüllung wie auch eine Korrektur der unbefriedigenden Wirklichkeit sei, rekonstruiere ich in der vorliegenden Arbeit aus den polysemen Deutungsangeboten Kohs jedoch eine Lesart: konkrete Poesie als Erzählung vom Leben.

In meinen Augen beschreibt Koh im Gedichtband eine Lebensgeschichte, die mit der Entstehung des Subjekts ansetzt und mit einem "Memento mori" endet. Zwischen dieser Spanne entfaltet "das konkrete Ich" Kohs eine

satirische Gesellschaftskritik, die sich u.a. gegen eine scheinhafte Geborgenheit von falschen Zusammenschlüssen richtet.

Aber anders als ein modernes Subjekt, das sich oft von einer unerträglichen Wirklichkeit abwendet und in sich Unendlichkeit und Vervollkommnung anstrebt, zeigt sich im Zentrum von Kohs Subjekt eine Leerstelle, die ständig darauf wartet, von einem Du besetzt zu werden. So erscheint ihm ein Partner nicht bloß als erotisches Lustobjekt, sondern vor allem als "eine andere Hälfte", die seinen Mangel ausfüllt. So gelesen kann der Band mit konkreter Poesie, der auf den ersten Blick befremdlich wirkt, durchaus Sinn und auch Freude machen, denn:

"die frage nach dem
sinn
ist sinn
der frage"

주제어: 고원, 한글, 이야기로서의 구체시, 나는 둘이다

**Schlüsselbegriffe: Ko Won, koreanisches Alphabet, konkrete Poesie
als Erzählung, Ich bin zwei**

필자 E-Mail: ihmkukim@snu.ac.kr

투고일: 2005. 10. 29, 심사일: 2005. 11. 21, 심사완료일: 2005. 11. 21.